2015년 7급 공무원 경제학 문제 해설

1. 정답 1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 재정과 금융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환율정책으로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1번의 경우 자국통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출이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게 된다.

2. 정답 4번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피셔 방정식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하고 1년 후 105만원을 받으므로 명목이자율은 5%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물가지수가 100에서 102로 상승했으므로 물가상승률은 2%이다. 이를 피셔 방정식에 대입하면 실질이자율은 3%가 된다.

3. 정답 4번

완전경쟁기업의 총매출액은 10원 x 50개 = 500원 이다. 이윤 = 총매출액 – 총비용 이므로 총비용은 400원이 된다. 평균비용 = 총비용 ÷ 생산량 이므로 8원이 된다.

4. 정답 4번

균형에서의 국민소득은 실제물가와 기대물가가 동일한 때이다. 실제물가도 10이므로 균형 국민소득은 800이 된다.

5. 정답 3번

통화승수 = (C+D) / (C+R) 에서 양변을 D로 나누면 (현금예금비율 + 1) / (현금예금비율 + 지급준비율)로 구할 수 있다. (0.2 + 1) / (0.2 + 0.1) = 4가 된다.

6. 정답 4번

규모의 경제는 장기에서 1가지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위의 경제는 2가지 이상의 재화를 생산할 경우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결합효과라고 할 수 있다. 매몰비용은 단기의 고정비용과 같이 기업의 차후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몰비용의 기회비용은 “0”이 된다.

7. 정답 3번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민간재와 달리 수직으로 합계한다. 문제에서 공공재의 시장수요는 4가 되고, 시장공급은 5가 되므로 과다 공급되고 있다.

8. 정답 3번

경기자의 전략과 비용을 감안하여 각 경기자가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기자 B		
경기자 A		열심	태만
	열심	(5, 5)	(-4. 1)
	태만	(1. -4)	(1, 1)

상기 "표"에서 앞의 숫자는 경기자 A, 뒤쪽 숫자는 경기자 B의 순편익이다. 문제에서는 경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한 번만 선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두 경기자 모두 열심을 선택하면 5와 -4를 , 태만을 선택하면 1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4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피하고 두 경기자 모두 "태만"을 선택한다.

9. 정답 2번

구축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LM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IS곡선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LM곡선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도가 비탄력적 일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투자의 이자율탄력도가 낮을수록, 즉 비탄력적 일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므로 구축효과의 크기는 작아진다.

10. 정답 1번

유동성함정은 극심한 불황상황을 의미하며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로 LM곡선은 수평선이다. 이 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가장 커지고, 반면에 금융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정답 2번

문제와 같이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두 재화는 완전 보완관계가 되고, 무차별곡선의 모양은 "L"자 형이 된다. 그리고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자균형에서 두 재화의 소비량은 3X=5Y의 비율이 된다. 소비자균형에서 X재 소비량이 10단위 이므로 Y재 소비량은 6단위이다. 소비자균형에서는 예산제약식을 만족해야 하므로 소득 200원에서 X재 지출액 80원을 차감하면 Y재 지출액은 120원이 된다. Y재 소비량이 6단위 이므로 Y재의 가격은 20원이다.

12. 정답 1번

공개시장조작은 금융정책 수단의 하나로 중앙은행이 공개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며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다.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13. 정답 4번

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균형경기변동이라 하며, 화폐 균형경기변동 이론과 실물 균형 경기변동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실물 균형경기변동 이론은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는 실물적 충격, 즉 기술진보나 생산성 증대 같은 요인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14. 정답 2번

기대효용이론에서 문제와 같이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이 사람은 위험기피자이다. 위험기피자는 1,000원의 현금과 기대금액이 1,000원인 복권이 있을 경우 확실한 현금 1,000원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문제에서 복권의 기대금액은 10,000원 X 50% = 5,000원 이다.

이 복권의 기대효용은 100 X 50% = 50 이다. 반면 현금 2,400원의 효용은 20√6 이어서 복권의 기대효용이 더 크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위험기피자이나 복권을 더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복권 M은 기대금액이 2,200원 이므로 복권 L의 기대금액 5,000원 보다 작아 이 사람은 복권 L을 선택할 것이다.

15. 정답 2번

원화는 달러화 대비 환율이 하락하므로 평가절상된다. 엔화는 1달러 당 110엔에서 120엔으로 평가절하된다. 엔화는 원화와 달러화 대비 모두 평가절하된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16. 정답 1번

1인 당 자본의 증가율은 24%이다. 2015년 초에 1인 당 자본량이 100이었으므로 1년 동안 자본의 증가량은 24가 된다.

17. 정답 1번

국내 소비자잉여의 증가 분 = 160,000
국내 생산자잉여의 감소 분 = 80,000
국내 사회적잉여의 증가 분 = 80,000

18. 정답 2번

내생적 성장이론은 새고전학파의 루카스가 주장한 경제성장이론이다. 이 이론은 솔로우의 경제성장이론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중요한 기술진보를 모든 국가에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은 수렴한다는 가설을 반박하면서 제시된 이론이다.

루카스는 모든 국가의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각 국가의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보다는 기술진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술진보를 종속변수, 즉 내생변수로 처리하여 기술진보가 빠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여 수렴가설에 대비해 발산가설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연구투자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19. 정답 2번

이자율 평형이론에 의하면 미래(선물)환율 = 한국의 이자율 – 미국의 이자율로 계산된다. 따라서 선물환율은 2%가 상승한다. 선물환율이 달러 당 1,122원이므로 현재환율은 선물환율 보다 2% 하락한 1,100원이 된다.

20. 정답 3번

문제의 그림에서 SMC > PMC 이므로 이는 생산 면에서 외부불경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나타나면 현재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